

주기도문의 번역상의 문제점

나채운*

1. 성경과 주기도 본문

주기도 본문은 성경 번역의 역사상 독특한 지위와 의미를 가진다.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 1882년 단행본 누가복음으로 발행되기 반 세기 전인 1832년 화란선교회의 귀츨라프(K. Gutzlaff) 선교사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입국을 거절당하고, 충청도 고대도에서 한국인 양이의 도움을 받아 주기도 본문을 번역한 것이 단편적으로는 최초의 성경 번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 번역이 전해져 내려오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 역사적 사실 자체는, 앞으로 있을 성경 번역에 하나의 여명을 비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선구적인 역할을 한 것과는 반대로, 그 후에는 주기도 본문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가장 후진적인 것이 된 것은 하나의 역리(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즉 1937년 번역의 개역성경에서 '나라'라는 명사의 주격조사가 모두 '-가'로 쓰인 것과는 달리, 주기도 본문에서만 유독히 '-이' 조사가 쓰여 '나라이'로 된 것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개역과는 달리 1911년 역의 소위 '구역'에서는 오히려 '나라가'로 되어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아이러니다). 개역에서 모든 '나라'가 '-가' 조사를 쓰고 있는데, 주기도 본문의 '나라'만이 '-이' 조사를 쓰고 있는 것은, 주기도는 모든 교인들이 예배시에 음송하는 성경본문으로서, 그 어느 성경 구절보다도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음송의 변경을 싫어하여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우리말 주기도의 변경을 원치 않는 것이 주기도의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주기도문의 중요성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예배의 중요성과 직결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예배인데, 주기도

* 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신약학.

도는 바로 그 예배 가운데의 중요한 한 가지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를 그 주체로 보면, 개인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하는 개인기도와, 공중 예배시에,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함께 하는 공동기도의 두 가지가 있거니와, 예수께서는 후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기도할 것을 그 모본을 들어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 본문이다(마 6:9-13; 눅 11:24).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야 말로 “기도 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은,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의 우리말 번역이 잘못되어, 한국 교회 교인들은 주기도를 할 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는 달리, 즉 틀리게,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3. 문법상 잘못된 것

3.1. “나라이 임하옵시며” 에서의 “나라이”

이것은 100년도 넘는 옛날의 문법이요, 오늘날의 문법으로는 ‘나라가’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잘못된 번역(개역성경) 때문에,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총 3289명 조사 대상자 가운데에서 초 중 고등 학생의 78 퍼센트, 청장년의 42 퍼센트가 그나마 ‘나라이’를 ‘나라에’로 잘못 기도하고 있다¹⁾. ‘나라에’라고 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본래 우리말에서 ‘나라’는 ‘나랏’으로서, 여기에 ‘-이’ 조사(助詞)가 붙어 ‘나라히’로 쓰기도 하였는데, 그 후에 ‘-히’ 조사가 없어지고 ‘-이’ 조사가 되고, 그 후에 받침 없는 명사에는 ‘-가’가 붙게 되었고, 그 문법에 따라 성경 중 모든 ‘나라’에 ‘-가’ 조사를 붙여 ‘나라가’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기도 본문에서만 아직도 ‘나라이’로 남아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²⁾.

3.2.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 에서의 “오늘날”

이 낱말의 희랍어 원어(세메론, *semeron*)는 분명히 24시간의 하루를 가리키는 ‘오늘’이지, 결코 여러 날 또는 한 시대를 가리키는 ‘오늘날’이 아니다³⁾.

1) 자세한 것은 필자의 책 『주기도 사도신경 축도』 107면 참조.

2) 자세한 설명은 앞의 책 105-107면 참조.

3) ‘오늘’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좁은 뜻으로서는 24시간의 하루(어제와 내일의 사이)를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서는 시대를 가리킨다. 예컨대, 어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매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지(출애굽시의 만나처럼), 여러 날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오늘날 열 두시 차로 부산 간다”와 같은 식의 웃기는 말이다.

3.3.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서의 “주옵시고”

우리말에서 존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듣는이 존대와 말하는이 겸양의 두 방법이 있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본문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간(語幹)에 그 어떤 접사(接辭)보다도 “-시”가 먼저 와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옵시’로 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 예증으로는 ‘주시옵소서’는 가능하지만 ‘주옵시소서’는 불가능한 것과 같다. 이 외에 ‘하옵시고’도 ‘하시옵고’의 잘못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4. 어휘나 표현상 부적당한 것

4.1. 제2인칭 대명사의 문제

우리나라의 대우법(경어법)은 네 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거니와, 그것이 동사의 경우에는 네 계층이 다 있으나(-해라, -하계, -하소, -하십시오), 제2인칭 대명사의 경우에는 극존대(아주높임)가 없다. 즉, ‘너’(아주낮춤), ‘자네’(예사낮춤), ‘당신’(예사높임)으로 세 계층은 있는데 그 위에는, 인칭대명사로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실제로 ‘당신’ 이상의 극존대형으로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 대신하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댁’, ‘선생님’, ‘어르신네’, ‘사장님’, ‘회장님’ 등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의 주기도 본문에서는, 초기 번역으로부터 개역성경(1937년 번역)까지와 표준새번역(1993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제2인칭 대명사(헬리어 sou, 영어의 thy 또는 you)를 생략하고, 그 외의 모든 번역에서는 ‘아버지’라는 말로 대치하고 있다. 단지 한 번 1961년 복음동지회에서 번역한 “새로 옮긴 신약성서”(마태의 복음서)에서만 ‘당신’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의 제목을 “한국 교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한국 교회의 3일 간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과거, ‘오늘’은 현재(‘오늘날’의 뜻), ‘내일’은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이란 말은 어떠한 경우에도 24시간의 하루를 나타내 주지 못한다.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 사용의 문제는 지금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니와, 이제 이 문제는 우선 주기도에서부터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아직도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은 편이나,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당신’을 쓸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제2인칭 대명사가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만큼, 그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해야 하며, 그 번역으로는 ‘당신’ 이외의 말이 없다(번역을 하지 않고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문의 뜻을 그르친다).

둘째, ‘당신’이라는 말이 대우법상으로는 극존대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말 기도문과 같은 문어체에 있어서는, 예의적인 용법(courteous usage)으로보다는 문법적 용법(grammatical usage)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존대의 표현보다는 문법적 지시기능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을 사용할 때 무엇보다도 대화의 상대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근접감(nearness)과 친밀감(intimacy)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당신’은 단순한 비존대형으로서의 평칭(平稱)이 아니라, 특별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친칭(親稱)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사례로는 주기도문의 독일어 번역에서, 제2인칭 대명사로서 존칭 또는 의례적 호칭인 Sie의 속격 Sein을 쓰지 아니하고 평칭인 동시에 친칭인 du의 속격 dein을 쓰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서 ‘당신’을 쓰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니와, 이러한 상황에서, 1991년 한글학회 발행의 “우리말 큰 사전”에서도 공동번역 성경에서 쓴 ‘당신’을 인정하여, 하나님에 대한 ‘아주높임’으로 ‘당신’을 쓸 수 있다고 했으므로⁴⁾, 그렇게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신약성경에서는, 대화의 상대자로서의 예수님께 대해서 ‘당신’이라고 쓴 사례가 허다히 많은데(마 3:14, 12:2, 47, 9:14, 11:3, 15:2, 22:16-17, 막 3:11, 5:7, 8:29, 12:14, 눅 9:40, 20:2, 요 1:49 등), 교인들이 그러한 대목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나조사 같은 데에서 부모나 스승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4) 당신 - 대이름씨. ① 하오 할 자리(예사높임)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보기) 당신은 누구요? 둘째 가리킴. (참고) 너. ② 합쇼 할 자리(아주높임)에 상대방을 가리키는 말. (보기) “하느님이시여, 저희가 당신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하나이다”. <성경>

여섯째, 우리말과 같은 존대법이 있는 일본어에서도 제2인칭 대명사의 용법은 우리말과 매우 흡사하여, ‘너’에 해당되는 ‘오마에’, ‘자네’에 해당되는 ‘기미’, ‘당신’에 해당되는 ‘아나다’ 등이 있을 뿐, 그 이상의 극존대는 없는 데, 일본에서는 성경 번역에서나, 기도에서나 오래 전부터 “아나다”(우리말의 ‘당신’)를 쓰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참고적인 사실이다.

4.2.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hagiastheto*로서, 그 원형 *hagiazō*의 뜻은 결코 “거룩히 여기다”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이므로 잘못된 번역이다. 즉 *hagiastheto*는 “거룩하게 여기다”의 수동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다”의 수동태로서 “거룩하여지게 하시며”라는 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원의 뜻은, 본래적으로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즉 하나님의 인격 자체)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신성시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또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되거나 모독을 받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룩하여지게(신성화되도록) 해달라는 기원인 것이다. 이 본문에서 거룩하게 하는 행위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하는 문제와, 또 이 기원이 종말론적인 것에 국한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먼저, 거룩하게 하는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hagiastheto*가 소위 ‘신적인 수동태’(divine passive)이나 아니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신적인 수동태란 하나님이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고 동사를 능동태로 쓰는 대신에, 그 행위의 상대방을 주격으로 하고 동사를 수동태로 하는, 특별한 문법적 변형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어법의 기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호칭을 말하기를 삼가는 데 있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좋지 못한 일에 관련되어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 예컨대 어떤 고통 재난이나 좋지 않은 일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후에는 다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 어법이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로는 마 7:1-2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에서, 비판한 자가 비판을 받는 것은 그가 비판한 상대방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이므로, 하나님을 주격으로 하여 능동태 동사를 쓰지 아니하고, 비판한 자를 주어로 하고 그 동사를 수동태로 한 것을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로는 마 5:4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에서 위로하는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인데, 문장의 구조상으로는 애통하는 자의 상황을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 6:9의 *hagiastheto*는 신적 수동태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하여 메츠거 박사는 마 5:4, 6, 7, 9 등을 신적수동태로 보는 것과는 달리, 이 경우는 신적수동태가 아니라고 단정한다. 그 이유는 이 동사에서 그 직접적인 행위자,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데 있는 것이다.⁵⁾

표준새번역이 출간되었을 때, 많이 논란이 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기도 본문 중의 이 구절이었다. 이 구절은 참으로 번역하기도 해석하기도 어려운 본문이다. 표준새번역의 문장을 검토하는 데 참여한 필자 자신도 주기도 본문의 번역 자체에는 불만이 없는 것 아니다. 번역자는 원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상의 의미 뿐 아니라, 그 구문상의 특징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표준새번역의 주기도 본문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구문상의 특징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흠이 있다.

첫째, 주기도 본문은 그 전체가 12행의 운율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고, 둘째, 그것은 *sou* 구조(우리말로는 ‘당신’을 피한다면 ‘아버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원문상 분명하다(표준새번역에서는 지면 관계로 13행이 되어 있다). 이 *sou* 구조는 첫 행에서는 ‘아버지’라는 명사 호격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 하나님에 관한 기원 부분, 소위 *thou-petitions*에서는 세 번의 제2인칭 대명사로,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 소위 *we-petitions*에서는 숨은 주어로, 그리고 마지막 송영(결론)에서는 다시 첫머리(열한째 행, 우리 번역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표준새번역이나, 지난번의 개역 개정판에서는, 오랫동안의 개역의 전통을 따르고, 또 입에 익숙한 암송문을 바꾸지 않는다는 수구적(守舊的인) 생각으로, 이처럼 중요한 *sou* 를 세 번이나 번역하지 않고 생략함으로써, 원문의 뜻도 약화시키고, 그 아름다운 원문의 운율도 살리지 못하였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상으로나 구조상으로나, 그(주님)의 ‘아버지’(원문으로는 ‘당신’)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나타내지 않는 것은 단지 문장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원문의 의미를 그르치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5) 그는 필자가 보낸 질문의 편지에 “I do not see that the passive verb in Matt. 6:9 is a ‘divine passive’. All of us are expected to acknowledge God’s holiness.” 라고 답장을 보내 왔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논란점이 되어 있는 동사 *hagiastheto*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매우 복잡한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본 문장에서 동사가 그 자체로는 수동태이고, 전체 기원문의 구조 안에서는 사역형(使役形)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동사와 관련된 본 문장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는 동사 *hagiastheto*에 관련되는 주체가 넷 있는데, 그것은 기원자(화자)와, 동사의 주어와, 문장 구조 속에 숨어 있는 동사의 사역자와, 행위자이다. 기원자는 주기도의 첫머리에서 기도의 대상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구절 가운데서의 ‘우리’요, 동사의 주어는 문장상에 분명히 나타난 대로 ‘당신(아버지)의 이름’이요, 동사의 사역자는 기도의 대상이자 기도의 내용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아버지)이요, 행위자는 문장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동사의 내용(거룩하게 함)을 실제적으로 이룰 ‘인간’이다. 이제 이 넷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내용상으로는 “우리(기원자)가 기원하노니, 아버지(사역자)께서는 당신의 이름(주어)이 인간들(우리를 포함해서 행위자)에 의하여 거룩하여지(수동태)도록 하여(사역형) 주소서(기원형)”라는 문장이 성립된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동작자는, 메츠거 박사의 지적대로 인간인데, 인간은 그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아버지(사역자)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하게 문법적인 구조를 따른 문자적 번역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그 주요한 의미에만 치중하여 거룩하게 하는 인간의 동작에보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둔다면, 그 번역도 동사의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로 할 수도 있다. 단지 이러한 경우에는 본 동사가 신적인 수동태가 아니라는 메츠거 박사의 이론은 무시될 수밖에 없다.

4.3.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

이 구절에서는 번역의 문제가 해석의 문제와 한 데 얽혀 있어 문장의 표현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먼저 원문의 낱말에서 보면, 우리말에서 ‘죄 지은 자’와 ‘죄’라고 번역된 원어 *opheiletais*와 *opheilemata*는 본래 ‘빚진 자’와 ‘빚’이란 뜻을 가진 것인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 지은 자’와 ‘죄’로 나타낸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유대사상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은 빚을 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빛을 탐감해 주시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구절의 번역에 있어서 원어에 충실한 많은 번역본문은 우리말 번역에서 ‘죄’라고 한 것과는 달리, ‘빛’과 ‘빛 진 자’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⁶⁾.

이 구절에서 필자는 원어의 신학적인 의미를 중요시하여 하나의 새로운 번역을 시도해 본다. 첫째, 원어 *opheilema*를 우리말로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로 하고,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잘못’으로 하고,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는 ‘사함’으로 하고, 인간의 잘못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용서’로 구별해 보는 것이다. 그 성경적인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막 2:7) 한 것이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일 뿐 아니라 기독교적인 교리인데, 이 점을 주기도 본문에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구문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였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로 하여, 하나님의 사죄와 우리의 용서의 순서를 바꾼 것은, 유대적 사고방식인 마태복음의 본문을 따르지 않고, 더 본래적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본문을 따른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용서를 조건으로 하여, 또 우리를 본받아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 같은 오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4.4.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서의 “시험”

본문의 헬라어 원어인 *peirasmon*을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는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다. 먼저 이때까지의 우리말 번역성경의 실체를 보면, 해방 전까지의 번역에서는 거의 ‘시험’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해방 후의 번역에 있어서는 ‘유혹’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시험’으로 번역한 것은 “새로 옮긴 신약성서”(1961년), “표준신약전서”(1983년),

“현대인의 성경”(1985년), “표준새번역”(1993년) 등 넷인 데 대해서, ‘유혹’으로 번역한 것은 “신약전서 새번역”(1967년), “공동번역”(1971년), “현대어성경”(1978년), “천주교 신약성서”(1964년), “천주교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1991년), “개역성경 개정판 신약”(1995년) 등이다. 영어성경의 경우를 보면, 필자가 조사한 21종의 주요한 번역 가운데에서 14종이 *temptation*으로 되어 있고,

6) 예컨대, 영어의 *debts* 와 *debtors*; 독일어의 *Schuld* 와 *Schuldigern*; 중국어의 罪, 罪債; 일어의 負債, おひめ; 단, 불어의 *offenses* 는 다르다.

그 이외에는 tentation(‘시험’이란 고어), test 또는 trial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우리말에서 ‘시험’이란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말의 “시험”을 국어사전(한글학회 지은 우리말 큰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시험: 1).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보기: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을 보다. 한자어: 고사, 고시. 2). 사물의 성질을 실지로 증험하여 봄. 보기: 시험 운전, 시험 재배.

이상에서 보면, 우리말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시험’이란 말은 헬라이어 peirasmos(주격)가 주기도문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전연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주기도 본문에서 말하는 peirasmos(개역의 ‘시험’)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낱말의 동사형 peirazo(시험하다, 유혹하다)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귀, 인간 셋이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립적인 두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주체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시험 또는 유혹의 주체인 마귀의 삼각 관계가 놓여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마귀(악한 자)의 행위에 빠져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행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과 그 행위가 시험이 아닌 것은 본 문맥상으로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약 1:13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사람이 시험(영어역: tempted; 일어역: 유혹; 우리말 성경의 ‘시험’은 정확하지 못함)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더구나 본절 후반이 악(또는 악한 자)으로부터 건져 달라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의 주체도, 악으로 유혹하는 주체도 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기도의 원초적인 언어가 아람어라는 전제 아래 현재의 영어 주기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James H. Charlesworth 박사는 “Lead us not into temptation”은 잘못된 것이고 “Do not allow us to enter into temptation”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와 악에 빠지게 하기 위한 유혹(to solicit into evil)인 데 대해, 하나님의 경우에 우리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시련(test under trial)인 것이다. 그리고 본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를 유혹으로부터(from temptation) 면하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유혹 안에서 (in temptation) 지켜 달라는 것이다.

둘째로, 여기의 peirasmos는 그 문맥에서 보면, 바로 앞에 언급된 ‘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한 것은 우리의 과거에 언급한 것인 데 대해, 이것은 미래에 우리를 죄에 빠뜨릴 유혹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유혹’이지 ‘시험’ (우리말 사전의 뜻으로)이 아닌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⁷⁾

주기도의 소위 “우리를 위한 간구” (We-petitions)에서 첫째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것은, 육적인 것 현재적인 것이요, 둘째, 죄 사해주심을 간구하는 것은 영적인 것 과거적인 것이요, 셋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미래적인 것이다. 무릇,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셋째로 본문의 peirasmon이 학자들 가운데에서 논란되어 온 것은, 그것이 종말론적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이세만(Seesemann)은, “이 간구가 단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절박한 기대에 기초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것을 단지 종말의 대환난 가운데서 지켜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한다⁸⁾.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의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라고 하신 것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유혹과 악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2차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송영에서의 “대개”

이 송영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개역)는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들에는 없는 것이지만, 후대에 예전적인 (liturgical) 필요에서 첨가된 것으로서, 성경 번역상으로는 혹은 탈락시키기도 하고, 혹은 괄호 안에 처리하기도 하지만 예배시의 기도로 드릴 때에는 어느 나라 말을 불문하고 다 이 부분을 포함시킨다. 그것은 이 송영 부분이 주기도 본문 전체의 구성에서 볼 때 그 마무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 구

7) “What is at issue here is in no sense a test” G.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 p.31 참조.

8) G. Friedrich, 같은 면.

절에서 몇 가지 번역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첫째, '대개'라는 말은 우리말 개역본의 괄호 안에 있는 송영에는 나타나지 않고, 찬송가에 부기되어 있는 주기도 본문에 있는 것으로서, 헬라어 hoti에 대한 번역이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다른 번역 예를 살펴보자.

먼저, 이 송영의 번역에 있어서 영역성경에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고대의 권위 있는 사본을 따라 송영을 기록하지 않은 것, 둘째는 송영을 난하주에 부기하고 있는 것, 셋째는 송영을 본문에 넣되 괄호 안에 두어 본래적이 아닌 것을 나타내는 것, 넷째는 아무런 표시 없이 본문으로 넣은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예수성교전서"(1887년)에는 송영 자체가 없고, 구역(1911년)과 게일역(1925년)에서는 본문 가운데에 있고, 개역(1937년), 공동번역(1971년), 표준새번역(1993년), 개역 개정판(1995년)에서는 괄호 안에 두었고, 새번역(1967년)에서는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뒷면의 사본고증란에 부기하였다.

다음, 송영 중의 '대개'의 번역에 대하여 보면, 우리말 성경에서 송영이 번역되어 있는 역본 가운데에서 게일역(1925년), 개역(1937년), 새번역(1967년), 공동번역(1971년) 등 중요한 번역본에서는 '대개'가 없고, 그 외의 번역본에서는 '대개'를 썼다. 그러면 우리말의 '대개'는 어디서 유래하는가? 그것은 우리말의 한자어 '대개'(大蓋)에 유래한 듯하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 번역의 참고자료가 되었던 중국어 성경이 '蓋'(카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대개'(大蓋)는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뜻으로서,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인 '대개'(大概; '대강 말해서' '대체적으로'의 뜻)와는 다르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보면, '大蓋'와 '大概'는 유의어(類義語)로 쓰이고 있으나, '蓋'에는 '덮다'의 뜻을 비롯해서 14 가지의 뜻이 있는 중, 마지막 13번째와 14번째에 우리말의 '大概'와 '大蓋'의 두 가지도 들어 있다. 그러나 중국어 성경에서 보면, 초기 번역(1823년, 1855년 등)에서는 '蓋'를 쓰다가, 1872년 후로는 '以' '因' 또는 '因爲'('왜냐하면'의 뜻)로 쓰고 있다. 이것은 후대의 번역자가 '蓋'에는 헬라어 hoti(우리말로는 '大蓋')의 뜻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다같이 한자를 쓰는 일어성경에서도 처음에는 중국어 성경의 번역을 따라서 '蓋し'(けだし; 게다가)를 썼으나, 후에는 'そは'('왜냐하면'의 뜻)로 바꾸었다.

그러면 우리말의 "대개"가 그 뜻으로 보아 헬라어 hoti에 대한 가능한 번역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 질문이 두 가지의 다른 한자어 중 어느 것을

9) '대략' '대강'의 뜻; 장삼식의 漢韓大辭典 351면 참조.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첫째 ‘大概’의 뜻으로는 전연 맞지 않고, ‘大蓋’의 뜻으로는 얼마간은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로 ‘대개’라고 할 때, 대다수의 사람이 ‘大蓋’는 모르고 ‘大概’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기도 본문에 쓰면 원어의 뜻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면 원어 hoti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이에는 간단히 문자대로만 번역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기도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운율 때문이다. 즉, 원어 hoti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뜻(영어로는 For; 우리말 문어체로는 “이는 ...함이니이다”)인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길어서 헬라어 원문이 가지고 있는 운율 즉 리듬(주기도문은 12행의 리듬으로 되어 있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운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뜻은 내용상 이해되는 것(understood)으로 하고, 번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이 또한 우리말 중국어 일어 번역성경이 거의 다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4.6. 송영에서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에서 원어 sou estin의 바른 번역은 “...아버지께 ... 있사옵나이다”가 아니고, “아버지(당신)의 것입니다”이다. 앞서 주기도문이 “sou(당신의) 구조”(thy' structure)로 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편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어 dunamis의 바른 번역도 ‘권세’가 아니고 ‘권능’ 또는 ‘능력’이 옳다. 같은 한자를 쓰는 중국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고, “권세”로 번역한 것은 하나도 없다.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번역상 문제가 되는 것을 살펴보았거니와 (이 외의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세계 선교역사상 유례가 없이 성장했다는 한국 교회라고 하면서, 실로 세계 교회에서 유례가 없이 잘못 번역된 주기도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주기도가 그리스도인에 의하여 수없이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그저 형식적으로 외우기만 하는 것을 경계하였거니와, 한국 교회 교인들은 형식적인 기도에도 잘못 번역되어 틀린 기도까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다르게, 틀린 주기도를 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께서로부터 책망받을 일인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만큼 중요한 주기도, 예배 가운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기도, 이러한 주기도가 잘못 번역되어 잘못 하고 있는 데도 목회자나 신학교 교수까지도 거의 무관심할 뿐 아니라, 몇 번 총회에 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는 데도 한 마디로 묵살되고 말았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한국 교회여, 이제 이 이상 더 잘못된 주기도로(주기도에 상처를 줌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

주기도 본문 개정 시안

이상의 이론을 따라 우리말 주기도 본문 개정 시안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기본 시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였사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건져 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다른 시안 - 변개 또는 대치

- 1) '아버지'를 모두 '당신'으로 변개할 수도 있음.
- 2) "이름이 거룩하여지게 하시며"를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로 변개할 수도 있음. 이 경우는 원문의 문법적인 구조를 도외시하고 의미만을 나타내는 의역(표준새번역).
- 3)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으로 대치할 수도 있음.
- 4) '악에서도'를 '악한 자에게서도'로 대치할 수도 있음.
- 5) '건져 주소서'를 '구해 주소서'로 대치할 수도 있음.